

“The Five-Year Plan for Promotion of Arts” and Culture and  
Populariz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文藝中興 五個年計劃과 古典開發

諸 洪 圭  
國立中央圖書館

序 言

文藝中興 五個年計劃은 그 推進本部로서 文化公報部에서 1974年度를 第1次 年度로 해서 始作되었다. 좀 때늦은 感은 없지 않으나 이러한 文藝中興의 새로운 發展의 計劃이 政府機關을 主軸으로 해서 發起되어 推進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다.

한 나라의 發展過程을 도리켜 보면 그 어느 時代, 어느 國家이고 國家의 發展相은 文藝復興이 原因이 되어 燦爛한 文化를 建設했음을 볼 수 있다. 卽, 이러한 點으로 생각한다면 國家의 發展은 곧 文明의 發達이 그 尺度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國力の 伸張이 文藝復興과 같이 하고 社會의 安定과 文明의 發展이 同伴할 때 國家는 發展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文化公報部에서 推進하고 있는 「文藝中興 五個年計劃」을 眞心으로 歡迎하면서 現在 推進되고 있는 事業計劃의 內容을 紹介하고 아울러 圖書館의 立場에서 推進되어야 할 古典籍의 發掘, 開發이 이 運動에 隨伴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 古典籍의 開發을 위한 몇 가지 小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이 文藝中興 五個年計劃의 內容을 紹介함에 앞서 한 가지 아쉬운 點이 있다면 40個의 主要 事業과 220個에 達하는 單位事業 가운데 文藝中興의 一線을 擔當하고 있는 圖書館의 育成政策이 빠져 있음을 볼 때 아쉬운 마음 끝이 없다.

다만 古典開發과 國學部門의 研究開發이 推進될 것으로 보아 기대하여야 하리라.

圖書館은 새삼 說明할 必要도 없이 새로운 情報의 迅速한 傳達은 勿論 國家文獻의 蒐集, 保存과 그 活用に 있음으로 文藝中興을 위한 中樞的 役割을 맡아야 할 機關이기 때문이다.

文藝中興 五個年計劃

1974年度 文化公報部의 總豫算額은 71億 7千 2百萬원에 達하고 있는데 그 中 今年度에 始作되는 文藝中興

五個年計劃事業의 第1次 年度 事業에 投入되는 規模가 50億 8천萬원을 차지하고 있어 文藝中興 推進本產地로서 面目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이 部門에 뜻있는 國民들은 期待에 찬 마음으로 歡迎하고 있을 것이다.

1月 31日 朴大統領閣下의 文化公報部 年頭巡視에서 報告된 內容을 보면 文化公報部는 文藝中興 五個年計劃의 第1次 年度인 今年에 政府豫算 32億 1千萬원과 劇場을 通하여 文藝振興基金으로 11億 5千萬원, 映畫振興基金 7億 2千萬원 등 都合 50億 8千萬원을 投入하여 우리 固有의 傳統文化와 藝術振興 및 大衆文化 등 三個部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알려졌다.

文藝中興의 細部計劃을 살펴보면 總 11個部門에 걸쳐 展開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國學開發센터를 筆頭로 美術館 演劇會館建立과 大作映畫製作을 위한 綜合攝影所建立 등 大規模의 文藝振興事業들이 包含되어 文藝界에 모처럼의 큰 잔치를 앞둔 들뜬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文學分野에서는 1億원의 作家基金을 設置運營할 計劃이며 出版分野에서도 1億원의 出版金庫基金을 마련하여 各面에 한個所의 書店을 設置하여 새마을事業과 農漁村의 마을文庫 등을 育成支援할 것을 推進中이며 景福宮內에 있는 前 現代美術館의 建物을 改修하여 民俗博物館으로 開館하여 傳統的인 우리 民族固有의 生活資料를 體系的으로 蒐集, 保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計劃이 어느 一個 機關이나 研究所의 努力만으로는 完全한 結實을 期할 수가 없을 것이며 國民全體가 本 文藝中興 五個年計劃의 趣旨을 充分히 理解하고 協助하여 國民總和로 文藝中興도 함께 꽃피워야 할 것이다.

「傳統文化를 繼承하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民族文化를 創造하여 文藝中興을 이룩한다」는 基調아래 만들어진 이 計劃은 傳統文化의 開發, 藝術振興, 大衆化의 創達에 焦點을 모으고 있다.

文藝中興 五個年計劃은 政府가 처음으로 文化藝術振興을 위한 長期的 振興事業에 눈을 돌렸다는 點에서

重要한 意義를 가지며 特히 이런 文藝界에 從事하는 이와 우리를 圖書館人으로서도 자못 希望찬 눈으로 振興院의 發足과 그의 事業展開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이 事業中 國學關係의 史料發掘을 위한 細部事業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가) 韓國思想研究팀 構成……5個 部門으로 나누어 研究費支給

나) 韓國思想 심포지움 報告書 發刊

다) 史料의 發掘 支援

라) 敎養 國史 시리즈 發刊

마) 博物館 施設 擴充

바) 世宗大王 遺物 整理 展示

사) 國學開發센터 運營

아) 國學研究 情報 發刊

자) 國學研究費 支援, 五個 部門

차) 古典 綜合調查: 古典籍을 調查하고 目錄을 發刊하며 影印本을 年 10輯 發刊하며 解題本, 年 5輯 發刊할 수 있도록 支援한다.

카) 古典國譯: 150輯을 國譯하며 國譯者 養成을 위해 10名에게 獎學金을 支給하고 2個 研究機關을 支援한다.

타) 韓國學研究支援, 韓國學研究의 實態를 調查하고 圖書發刊 支援 및 研究資料集의 英譯 및 海外 韓國學 研究論文集 發刊 紹介

파) 韓國學 심포지움: 1976년부터 國際심포지움을 開催할 計劃이며 이 심포지움은 外國에서 韓國學研究가 一定한 軌道에 이르렀을 때 開催할 것이며 韓國學 研究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古典綜合開發

한 나라의 文化를 말할 때 文化民族이라고 흔히 들 말한다. 이 文化民族은 그 나라의 歷史에서 發展을 찾아보게 되며 그 歷史의 根據는 史料, 즉, 典籍이나 先人들의 遺物 등으로 그 나라의 過去의 발자취를 더듬어 歷史를 研究하고 지난날의 歷史를 거울삼아 새로운 歷史를 創造해 나간 것이 國家의 發展過程이며 文化의 發展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우리 나라의 古典籍은 先人들이 이룩해 놓은 文化遺産이며 우리의 固有文化를 現代에 이르러 接見할 수 있는 살아있는 史料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貴重史料들이 民族受難의 歷史속에서 散逸되어감을 볼 때 이의 安全한 保存策은 무엇보다도 時急한 問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리 固有의 典籍文化의 貴重な 史料들의 保存과 活用을 위한 綜合開發을 國家事業으로 推進하게 된 이때에 그 綜合開發의 方向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

는 것도 決코 無意味한 일은 아닐 것이다.

① 古典開發의 意義: 傳統文化의 代表的인 產物인 古典은 社會의 變化와 歷史의 흐름속에서 漸次 散逸되어감을 現時點에서라도 保存하기 위하여 古典을 綜合的으로 調査, 發掘하여 이를 總體的으로 整理하고 永久, 安全한 保存과 管理에 滿全을 期하고 現實的인 學術資料로서 活用될 수 있는 領域을 極大化하여 보다 迅速한 活用に 提供될 수 있도록 情報化하여 우리民族 固有의 傳統文化, 特히 韓國學의 보다 發展的인 基礎로 삼아 우리文化의 繼承에 이바지할 수 있는 文藝中興課業의 完遂에 박차를 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古典籍의 現況(韓國本, 古典籍의 總量 調査):

가) 國內 各級 圖書館의 古典籍……國內 各級 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韓國本 古典籍의 總量은 1973年度 圖協에서 發刊된 「한국도서관통계」에도 正確한 數字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韓國本 古典籍과 其他本을 70餘萬冊으로 推算한다면 韓國本의 數量을 40~50萬冊으로 推算할 수 있어 이들의 所藏處別 藏書目錄이 이미 所藏處別로 目錄을 刊行한 圖書館이 있으나 于今 冊子目錄을 刊行하지 못하고 있는 圖書館이 많다.

이 所藏處別 藏書目錄은 豫算이 許諾되는데로 時急히 刊行되어 綜合目錄作成 以前에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나) 書院: 李朝 中葉부터 普及된 民間 私學機關인 書院은 1864年(高宗 1)에 이르러 一部만을 남기고 철회하였는데 當時 남아 있던 書院만도 17個所였던 것이 現在까지 維持된 것이 30餘個所라 하며 이들 書院에 保存되어온 古典과 그의 緣故者들에 의해 私藏되어 있는 것까지를 調査한다면 相當히 많은 量이 있을 것으로 推測된다. 書院別 古典籍의 調査도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課題中の 하나이다.

다) 鄉校: 地方의 文廟와 거기에 附屬되어 있는 옛날의 學校로서 1127年(仁宗 5)에 始作된 鄉校는 1918年 朝鮮總督府의 調査에 의하면 總 335個所였다고하며 이들 鄉校에는 多少의 韓國本, 古典이 保存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 地方 鄉校의 古典籍 保存量도 調査되어야 할 것이다.

라) 寺刹: 現在 全國의 寺刹數는 曹溪宗 總務院의 調査에 의하면 1,381個所로서 古典籍의 藏書可能處가 約 2~300餘個의 寺刹로 볼 수 있고 이들 寺刹에는 大部分이 特殊한 佛教關係 古典이 많이 保存되어 있을 것으로 推測되며 全國 寺刹의 所藏目錄이 出刊된다면 많은 稀貴本이 發掘되어 學界에 貢獻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佛敎文化가 우리 나라의 古代文化에 미치는 影響은 莫大했으므로 國家文獻의 保存을 위한 것은 말할 必要도 없고 書誌的 研究와 우리 나라 印刷文化의 研究 資料로서도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事業이다.

다) 個人: 近間 古書의 蒐集을 趣味로 하는 蒐集家들이 相當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每年 出版協會 主權로 模範藏書家 表彰을 하고 있다. 이와같이 蒐集을 計劃的으로 하고 있는 個人所藏의 古典도 많은 量을 點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 調査의 對象으로 해야 하며 一般 行政區域別로 藏書 可能量을 推算한다면 全國의 邑面을 同一한 單位로 보아 總 1,430餘個 區域으로서 1區域當 500餘冊을 所藏하고 있는 것으로 假定한다면 70餘萬冊이 散在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個人 蒐集家들이 所藏하고 있는 古典과 行政區域別 所藏推計의 基本調査를 實施한다면 古典籍의 保存現況을 어느程度 推算할 수 있을 것이다.

바) 古書店: 書店의 景氣不況으로 이제까지 沈滯되어 왔으나 現在까지 그 命脈을 이어오고 있는 古書店中에서 古典 特히 韓國本 古書를 蒐集 販賣하고 있는 書店이 아직 몇 個處 남아 있다. 이들 書店에서 分散 賣買되고 있는 古典籍들도 國家機關이나 各級 圖書館 등에서 蒐集하여 永久 安全한 保存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古典籍의 殘存 可能處를 列擧하여 保存現況과 推算量에 대한 方法을 略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構想은 筆者의 着想의 一面으로서 合理的인 方法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所藏量을 調査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參考가 될까하여 叙述한 것임을 밝혀 둔다.

③ 古典開發實態: 古典籍의 開發에 대한 事業이 推進된 것은 日淺하여 5~6년에 不過하다. 韓國學이 海外에서부터 沸이 일기 始作하여 逆으로 우리 나라에 上陸해온 느낌마저 주고 있는 實情이었다. 古典籍의 所藏機關, 即 公共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과 特殊圖書館 등에서는 그 整理事業과, 目錄刊行이 豫算에 억매여 뜻은 가지고 있으나 不振한 實情이며 龍大한 事業이 一時的으로 完成되리라고는 볼 수 없으나 新刊圖書에 뒤져서는 안될 時急한 問題이다.

또한 古典籍의 調査에 있어 調査方法과 記錄에 있어 機關別로 統一性이 있었으면 좋겠다.

近來 古典籍의 所藏處에서 發刊된 古書目錄類는 다음과 같다.

- ① 고서목록(1~4), 國立中央圖書館, 編 1970~1973
- ② 韓國古書綜合目錄, 大韓民國 國會圖書館, 1968
- ③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大學校附屬 東亞文化研究所, 1965

④ 藏書閣圖書 韓國版總目錄,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1972

⑤ 李朝書院 文庫目錄, 李春熙 編, 1969

⑥ 도서목록(고서편), 韓國銀行圖書室, 編, 1971

⑦ 古書部分類目錄, 國立圖書館, 編, 1965

⑧ 선본해제(1~4) 國立中央圖書館, 編, 1970~1973

⑨ 古文書解題(1~2) 國立中央圖書館, 編, 1972~1973

⑩ 고서목록(해제편), 서울市立鍾路圖書館, 編 1971

위에 列記한 目錄들은 各 所藏處 나름대로 編輯刊行된 目錄들로서 外形은 勿論, 內容에 있어서도 統一性이 없어 古典籍의 綜合調査를 計劃할 때 特別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외에도 日帝時代に 發刊된 우리나라 古典目錄, 解題 冊子로서는 「朝鮮圖書解題」와 「朝鮮冊譜」가 있으나 이들도 極히 制限된 活用に 끝이고 있다.

### 結 言

우리 나라의 傳統文化의 바탕위에 새로운 民族文化를 創造하기 위해 出帆한 文化藝術振院의 發足を 祝賀하는 뜻에서 그의 意義와 展開하게 될 事業內容을 살펴 보았다.

文藝復興이라하면 누구나 이탈리아의 「루네상스」(Renaissance)를 聯想하게 된다. 中世紀의 基督敎의 束縛에서 해어나서 個人과 個性의 解放을 부르짖고 이를 貴하게 여기자는 15世紀 前後의 文藝運動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는 事實들이다. 「단테」의 「神曲」에서 벗어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로의 差異가 이 運動의 始發點으로 指摘되는 것을 보아도 Renaissance의 性格은 잘 알 수가 있다.

自然人的 發見을 높히 評價하는 이 文藝運動이 「復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은 그리스, 로마의 燦爛했던 古典文化를 다시 再現시키자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 우리 나라에서 提唱하게 된 「文藝中興」도 여기 西洋의 「文藝復興」에서 主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古代 우리 나라의 燦爛했던 高句麗, 樂浪의 文化와 隆盛했던 新羅文化는 現代에 이르러서도 讚嘆을 아끼지 않는다.

日帝의 束縛과 어지러웠던 動亂 등으로 文藝振興政策이 度外視되었음은 어찌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제 「文藝中興」의 發火點은 불붙었으니 龍大한 40個 主要事業과 220個 單位事業의 多彩로운 프로그 국민 모두의 期待에 的中되어 우리 祖國의 民族文化를 찬란하게 꽃피워 주기를 바라며 計劃된 事業이 圓滿히 推進될 것을 期待한다.